

2009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의 내재적 의미

메시지 4

성전 건축자들—다윗과 솔로몬과 히람

성경: 마 12:3-4, 42, 왕상 7:13-14, 빌 3:10, 엡 4:11-12, 16, 계 3:12, 21:22

I.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두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A. 다윗은 하나님-사람 생활과 고난들을 지닌 육체 되심부터 죽음까지(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마 12:3-4, 22:41-46.
- B. 솔로몬은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영광 안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그분이 보좌에 앉으심과 다시 오셔서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심을 포함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마 12:42, 대하 1:10, 고전 1:24, 30, 12:8.
- C. 다윗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통해 그는 재료들을 준비했고, 성전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터를 얻었고, 건축자인 솔로몬과 모든 조력자들을 준비했다—대상 21:18-30, 대하 3:1, 대상 28:9-11, 20-21.
- D.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들을 넘치게 준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공급하심(대상 18:7-11, 22:2-5, 14-16 상, 28:2, 29:2-9, 참조 엡 3:8-10)을 예표한다.
- E. 다윗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준비한 것(대상 22:1-14)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가진 사탄에 맞서 싸우신 그분의 삶에서 거둔 승리(마 4:4, 7, 10, 12:28)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 풍성하게 준비하신 것을 예표한다.
- F.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식양은 ‘그 영께서 가르치신 식양’(대상 28:12)이었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19 절, 참조 고후 3:3).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 식양에 따른 것(대상 28:11)이었다.
- G.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직무의 반차를 안배한 것(대상 6:31-48, 23 장-26 장)은 그 영께서 신약에서 교회의 봉사의 질서를 안배하신 것(고전 12:4-27)과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이 그분의 몸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세우신 것(28-30 절, 14:40)을 예표한다.
- H. 교회의 청사진은 부활의 영—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복합되신, 내주하시는 영 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 안에서 살 때 다윗의 설계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실재(그리스도의 하나님-사람 생활, 죽음, 부활의 모든 성분을 지닌)가 우리 속에서 이뤄진다—요 2:19, 빌 1:19,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 I. 솔로몬의 이름은 ‘평안’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안식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무 소음 없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상 22:9, 행 9:31, 엡 4:29-32.
 - 1. 성전의 건축을 위해 사용된 모든 돌은 원칙적으로 이미 산에서 떠서 다듬어졌다. 그러므로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히 건축되었다—왕상 5:15-18, 6:7.
 - 2. 주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은 형제가 장로가 되면 교회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의 ‘소음’이 가득할 것이다. 어떤 ‘소음’은 어떤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를 수포로 돌리기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다.

3.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평이나 판단이나 반대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물러나 지성소 안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퇴각하여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된다—갈 6:17-18, 사 30:15 상, 마 11:28-30.
 4. 언약궤가 안식에 들어간 후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노래하는 봉사를 하도록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그의 집을 건축할 때까지 회막 앞에서 봉사했다—대상 6:31-32.
- J.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부한 것은, 만약 우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쫓게도록 허락하여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안식일의 안식으로, 즉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히 4:7-13.
 - K. 우리는 ‘그분의 일을 위해 왕과 함께 거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누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게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기둥들로 온전케 되어야 한다—영어 찬송가 904 장, 대상 4:23.
 - L. 부활 능력이자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부활시키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참 솔로몬이시자 더 큰 솔로몬)를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참 성전이자 더 큰 성전)을 위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사람 생활을 지니신 그리스도(참 다윗이시자 더 큰 다윗)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할 수 있다—빌 3:10, 롬 8:11, 마 12:3-4, 42, 요 2:19-22.
- II. 하나님을 사랑하는 추구자로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겼는데, 이것은 성전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어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삼상 16-17, 행 13:36 상, 빌 3:12, 요일 1:3, 롬 5:17, 마 1:1.**
- A.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필요를 보았고, 건축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멈추었다. 그가 멈춘 것은 우주 안에 이중 증거를 세웠다. 첫째로, 이 우주 안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삼하 7:18, 25, 27, 대상 22:7-19.
 - B. 시편 16 편—‘다윗의 믹담[황금 보석 같은 시]’—은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시고 그분의 큰 기쁨을 이루신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참조 엡 2:10.
 - C. 시편 22 편—‘새벽의 암사슴 곡조에 따른 다윗의 시’—은 구속하는 죽음과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D. 시편 132 편—‘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은 교회생활의 절정인 성전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식하는 곳인 성전에 대한 다윗의 갈망을 계시한다. 그곳에서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14 절),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15 절), 그들의 영광스러운 옷(16 절), 그들의 승리의 뿔(17 절), 그들을 비추는 등(17 절),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18 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E.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길을 드러 멀리 미치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게 했다(삼상 13:14, 삼하 6:3-9, 민 4:15, 7:9).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터는 다 다윗이 그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행하신 데서 나온 것이다—삼하 12:24-25, 24:1-10, 18-25, 대상 21:18, 대하 3:1, 시 51:1-2, 10-12, 17-18.
- III. 히람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인 사람들과 진리의 기둥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기둥 건축자들인, 온전케 된 이들과 온전케 하는 이들을 예표한다—왕상 7:13, 21, 계 3:12, 21:22, 엡 4:11-12, 16, 딤펴전 3:15.**

- A. 히람은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데려와졌는데(왕상 7:13-14),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이 건축된 곳이었다.
- B. 히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의 여자였다—대하 2:14.
1. 단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 우상 숭배의 지파이다—창 49:17, 사 18:31.
 2. 히람의 어머니가 단 지파의 여자였다는 사실은 히람의 기원이, 모든 사람들처럼, 죄였다는 것을 가리킨다—시 51:5, 참조 요 8:44 상, 롬 7:18.
- C.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왕상 7:14.
1. 두로는 무역으로 유명한 이방 도시였다. 그러므로 그 도시는 사탄과 하나였다—겔 28:12, 16.
 2. 히람의 아버지는 히람이 뜻을 다루는 기술의 근원이었다.
- D. 히람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왕상 7:14.
1. 납달리는 부활의 지파, 변화의 지파이다—“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창 49:21.
 - a.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후 1:8-9, 시 22-제목.
 - b.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활 능력 안에 산에서 뛰며 언덕을 달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모든 난관과 장애를 이긴다—합 3:19, 아 2:8-9, 8:14.
 2. 납달리가 발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생명의 말씀(행 5:20), 은혜의 말씀(14:3), 구원의 말씀(13:26), 지혜의 말씀(고전 12:8), 건축하는 말씀(행 20:32)을 상징한다.
 3. 하나님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그 건축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두로 성’에서 끊어져 ‘단 지파’에서 ‘납달리 지파’로 옮겨져야 한다—벧전 1:3, 고전 15:45 하, 고후 3:18.
- E. 히람의 아버지는 죽고, 단 지파인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왕상 7:14.
1.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려면 우리가 세상 학문과 기술을 얻어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근원인 우리의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2. 나아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는 우리의 ‘단 지파’ 어머니는 반드시 ‘과부가 되어’ 세상적인 근원과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갈 2:20.
 3.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이 끊어져 없는 학문과 기술을 계속해서 소유하여, 우리의 존재(어머니)는 이제 더이상 우리의 세상적인 기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대하 1:10, 행 7:22-25, 22:3, 25-28.
 4. ‘두로 사람’ 아버지는 반드시 죽고 ‘단 지파’인 어머니는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유용하도록 장수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시 91:14-16, 92:14, 고전 6:18-20, 9:27, 10:31, 빌 1:20, 롬 12:1-2.
 5. 만약 우리의 ‘두로 사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상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고, ‘두로의’ 기술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와 생활과 봉사의 각 부분에 있어서 부활 안에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참조 고전 3:12.
- F. 히람이 납달리 지파로 옮겨진 것은 비밀한데, 이것은 각 그리스도인의 역사에 비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요 3:8.
- G.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주님의 건축을 위해 나를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둥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